2054년 미래 불교를 상상하다

전문가들이 본 한국불교 미래



과학기술 발전, 종교 의미를 묻다

종교 · 사회 분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거시적인 사회 변화를 넘어 새로운 문명 전환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간극 속에 나타나는 질적 차이만큼 큰 변화가 현재 사회와 가까운 미래 사회 사이에서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런 문명 전환을 예측하게 하는 핵심적인 변화 동향은 탈실재화, 탈인간화, 탈진실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탈실재화 현상은 인간의 육체가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 현실 외에 새로운 대안적 현실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온라인,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 가상공간 등 어떻게 불렀든지 간에 물리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지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인간들의 일상적 경험이 가능한 대안적 현실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이것은 물리적 현실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모든 사회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가하고, 부적합한 질서는 폐기해야 한다. 삶의 기준이 변화한 것이다.

탈인간화 현상은 알파고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현에서 비롯된다. 이들 인공지능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여겨졌던 사유 및 학습이 가능한 기계이다. 또한 단순히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창작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인간을 망라하여 세상 만물이 서로 소통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고, 인간의 지시를 이행하는 대역의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유일무이한 자율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인간의 피조물인 기계에게 도전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기계의 역량을 인간의 육체에 수용하는 경향도 나타나면서 포스트휴머니즘 논쟁이 불거지기도 할 것이다.

脫실재 · 인간 · 진실화 예상
기계와 인간의 경계 무너지고
사실 권위 추락 진리 위상 약화

탈진실화는 사실에 기반을 둔 객관적 지식의 정당성이 약화하는 현상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미증유의 데이터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복제기술의 발전이 덧붙여지면서 실제보다 더 정교한 가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딥페이크 피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객관적 사실의 권위가 퇴색하면서 진실과 진리의 위상도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탈실재화, 탈인간화, 탈진실화 경향은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이 중첩된 다양한 현실이 교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로서 인간과 기계가 어울리며, 진실이나 진정성의 신화가 무너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 성찰보다는 타인의 욕망과 시선에 휘둘리는 사회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종교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될 것이다.

종교계 전반에 걸친 변화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2000년대 이후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탈종교화 경향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탈종교화가 종교성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종교보다 영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은 부인하기 힘들고, 그만큼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여기에 개인주의라는 경향이 결합하면 절대성을 유지해 온 교단 중심의 기존 종교들 대신 개개인의 선호와 필요성에 의해 구성되는 개인화된 종교가 출현할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도 높다고 생각한다.

사회 전반에 퍼진 새로운 문명의 전개와 종교계가 당면한 변화들은 기존 종교들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던진다.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다면 30년 후의 한국불교는 한층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텐데, 자못 궁금하다.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탈종교화 가속, '사부대중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찰경영 · 종무행정

과거 30년은 모든 면에서 이전의 한 세기를 넘어서는 가파른 변화의 소용돌이였다. 다시 30년 후의 기상도를 예측해보건대, '사찰경영 및 종무행정'의 시대적인 눈맞춤과 선진적인 변화는 가능한 것인가. 이의 전망은 오늘의 상황을 짚어보는 일로서 가능하겠다.

첫째, 자연생태계 및 문화자원 보전에 공헌을 자임해온 전통사찰을 비롯한 산사(山寺)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감이 더욱 커질 듯싶다.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숲은 기후환경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국민대중의 쉼터요 숨쉴 수 있는 시·공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담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명성을 중시하는 붓다담마(Buddha-Dhamma)의 사상적 가치와 사찰숲의 유익함을 연계해 인간경영을 모토로 사찰경영의 합리성·효율성을 모색할 수 있는 인적 종무시스템의 상설화가 요구된다.

둘째, 인적종무시스템을 구축한 일부 사찰이 종무행정에 IT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법회를 비롯한 사찰경영방식에 AI기술 도입 등 문명이기의 보편적 활용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현하 조계종 사찰의 70%가 IT운용과 거리가 멀고, 종단협 소속종단을 비롯한 대다수 군소종단의 운영방식이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단위사찰의 이러한 현실적 불균형은 향후 30년을 맞이하면서 양극화 현상을 더욱 고착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적잖은 사찰들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케 한다.

탈종교화 현상 점차 가속될 것
사찰 운영, 사부대중 중심 돼야
'부유하지만 타락 않는' 경영을

셋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출가자 감소 현상은 승단 및 사찰의 공백사태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 출가자 급감현실과 위정자를 위시한 공무원 사회의 기독교화는 머지않아 승단의 소멸을 부르고 급기야 전통사찰의 국가관리 체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단위사찰 내지 교단의 운영방식을 지금처럼 출가양중 내지 비구일중 중심체제로 고집할 경우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넷째, 출가자 감소 현상은 승가의 고령화를 재촉하고, 승가의 고령화는 '사찰경영 및 종무행정'의 선진화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조계종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세수 65세 이상이 27%로 이미 초고령 종단에 들어섰거니와,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이후에도 가속화되면서 승려노후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범종단 차원의 재정운용에 심각성을 더해줄 것이다.

다섯째, 불자들의 탈불교 점증현상은 단위사찰 및 교단의 존립가치와 사회적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불교 현상은 문명이기 등 외적환경의 영향을 받는 바 없지 않으나, 실제적 배경은 승가의 범계(犯戒)행위 및 세속화된 물질주의 팽배와 제의신앙(祭儀信仰)에 매몰된 사제화(司祭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붓다담마에 기반한 불교의 정체성 정립과 출가정신의 회복이 촉구되는 배경이 그와 같다.

우리 사회의 몇 가지 위기상황을 토대로 살펴본 '사찰경영 및 종무행정'의 30년 후 전망은 단위사찰 내지 교단의 경영방식을 '사부대중공동체 살림'으로 하루빨리 복원하고, 문명이기에 최적화한 인적종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적 조건들을 확인해준다.

"이젠 사찰도 경영"이라는 모토 아래 현대 경영학의 핵심기조와 사찰경영의 연구지표를 토대로 '청빈하지만 쇠락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타락하지 않는' 사찰기능의 전형을 정립하는 일은 한국불교의 생명성과 직결되는 막속급호(莫速急乎)의 과제라 하겠다.



하춘생 책임교수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회 주 상 진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벽 산
교 무 효 능
서 무 효 진
대 중 효 성, 일 겸
일 월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해 경
효 능
최종남, 류기석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관리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관리주임 황재훈(무영)
관리주임 공성희(여진)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